

국 어

1.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맞춤법이 모두 옳은 것은?

- ① 그는 V 가만히 V 있다가 V 모임에 V 온 V 지 V 두 V 시간 V 만에 V 돌아가 V 버렸다.
- ② 옆집 V 껌찌 V 팔로는 V 개펄이 V 좋다는데 V 우리도 V 언제 V 한 V 번 V 같 이 V 갑시다.
- ③ 그가 V 이렇게 V 늦어지는 V 걸 V 보니 V 무슨 V 큰 V 일이 V 난 V 게 V 틀 립 V 없다.
- ④ 하늘이 V 뚫린 V 것인지 V 몇 V 날 V 몇 V 일을 V 기다려도 V 비는 V 그치지 V 않았다.

<해설> 1. ①

'지'가 시간의 경과를 뜻할 때에는 띄어 쓴다. '만'이 시간의 경과를 뜻 할 때에는 띄어 쓴다.

앞 말이 '돌아가다', 즉 합성동사이므로 뒤에 나오는 보조용언과는 띄어 써야 한다.

- ② '한번'이 '어떤 일을 시험 삼아 해 보다'의 뜻일 때에는 붙여 쓴다.
- ③ '게, 걸, 거, 것'이 '것, 경우, 장소, 처지'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의 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큰일'은 '힘이 드는 일, 중대한 일'을 뜻하는 한 단어로 붙여 써야 한다. '틀림없다'도 한 단어로 붙여 쓴다.

→ 그가 V 이렇게 V 늦어지는 V 걸 V 보니 V 무슨 V 큰일이 V 난 V 게 V 틀림없 다.

④ 몇 V 일 (X) → 며칠 (O)
 → 하늘이 V 뚫린 V 것인지 V 몇 V 날 V 며칠을 V 기다려도 V 비는 V 그치지 V 않았다.

<호호쌤> <완전국어> 교재 실용언어(=실용언어는 밥이다): 99페이지 '띄어 쓰기 문제 33제' 내에 모두 나옵니다. 이론은 같은 교재 30-1,2 도표에 있습니다. <우리말합3.0> 문제집에 유난히 글을 주욱 붙여두고, 띄어쓰기 연습을 하는 문제 가 많은데, 52페이지 16회.7번 유형 같은 것입니다. 매일 1회씩 푸는 실용언어 문 제집입니다.

2. (가) 상황에 어울리는 글을 쓰려고 할 때 (나) 조건에 가장 잘 맞는 것은?

- (가) 상황 : 서로 다른 성격으로 인해 자주 다투는 두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충고 의 말을 하려 한다. 내용은 삶과 관련하여 '조화(調和)의 가치'에 대한 것으로 하고자 한다.
- (나) 조건 : ㉠ 대립적인 속성을 지닌 사물을 이용한다.
 ㉡ 유추와 대조의 표현 효과를 살린다.
 ㉢ 가치의 요소를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 ① 이는 딱딱하고 혀는 부드러다. 이는 음식을 씹되 그 맛을 모르고, 혀는 맛볼 수는 있으나 맛이 우리나라에 씹을 수는 없다. 이 둘이 어울려 제 기능을 다할 때 음식으로부터 즐거움과 건강을 얻을 수 있듯이, 엄격한 아버지와 자애로 운 어머니가 존재하기에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이런 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 ② 분수와 폭포는 영원한 대립자이다. 폭포는 지하를 향해 끝없이 하강하려 하지만, 분수는 천상을 향해 부단히 상승하려고 한다. 폭포가 철저히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려 한다면 분수는 이러한 법칙에 반대하고 저항한다. 이 두 개 의 의지는 결코 서로 만나 이웃을 이루는 일이 없다.
- ③ 광명과 암흑은 정반대의 현상이다. 그러나 광명이 있을 때 비로소 암흑이 생 겨난다. 촛불로 인해 찾아 온 광명은 암흑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촛 불 밑에 암흑을 불러들인다. 광명이 없는 암흑은 다만 죽어 있는 정적에 지 나지 않는다. 광명은 암흑을 깨어나게 한다.
- ④ 인간에게 역사와 신화의 두 다리가 있다. 역사는 먹고 자고 입는 일상의 울 타리 속에서 움직이며, 신화는 사랑하고 노래하며 춤추는 초월의 언덕 위에 서 행동한다. 밥은 역사의 양식이며 술을 신화의 양분이다. 이 둘 모두 필요 한 것이 사실이지만 술 없이는 살아도 밥 없이는 살 수 없다.

<해설> 2. ①

- ㉠ 대립적인 속성 : 이는 딱딱함 / 혀는 부드러움
- ㉡ 유추와 대조 : 음식을 씹는 기능과 맛을 느끼는 기능에 이와 혀가 각각 차이가 있음을 들어 대조하고 있으며, 이는 엄격한 아버지, 혀는 자애로운 어머니에 유추하고 있다.
- ㉢ '조화'의 가치를 '아이의 성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분수는 하강의 이미지를, 폭포는 상승의 이미지를 통해 대립적인 속 성을 드러내고 있다. 대조의 기법은 보이고 있으나, 유추가 나타나 있 지 않으며, 표현하고자 하는 '조화'에 대한 것이 아닌 '대립'에 관한 주 제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③ '광명과 암흑'이라는 대립적인 속성을 지닌 사물을 이용하고 있으나 대조의 기법이 나타나있지 않다. 또한 '조화'라는 주제와도 어울리지 않 는다.
- ④ 역사와 신화를 '다리, 술, 양식'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마 지막 문장에서 '조화'를 추구한다기 보다는 한 가지 관점(역사)에 더 중 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이 (가)의 상황에 맞지 않다.

<호호쌤> <위풍당당3.0> 문제집 2권 227페이지 <서울교행직 복원문 제> 15번을 봐주세요. 중요하다고 복원 문제 아래에, 따로 비슷한 유형 풀어보기 문제도 있습니다. 국어 문제에서 보기 항의 조건이 길 때 는 항상 '문제의 주제'에 초점을 두어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주제가 '조 화'란 걸 끝까지 놓치지 말았어야 합니다.

3. 밑줄 친 부분이 활용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다시 생각해 보니 내 생각과 달리 네 말이 맞는다.
- ② 유달리 가문 그해 봄에는 황사도 많이 왔다고 한다.
- ③ 나는 저린 어깨 때문에 가방을 제대로 들 수가 없다.
- ④ 그 모임의 분위기에 걸맞는 옷 좀 골라 주세요.

<해설> 3. ④

'걸맞다'는 형용사이므로 '걸맞은'으로 표기해야 한다.

- ① '맞다'가 동사이므로 현재형 '-는다'를 쓸 수 있다.
- ② 가물다 = 가물+ㄴ → 가문
- ③ 저리다 = 저리+ㄴ → 저린

<호호쌤> <완전국어> 교재 <문법과 독해> 편, 16페이지 3-2 형용사 에 명령형,청유형은 금지!란 도표에 나옵니다. <위풍당당3.0>문제집 1 권, 4페이지에서도 동사,형용사에 대해 많이 강조했습니다.

4. 다음 글의 밑줄 친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과학사(科學史)를 살펴보면, 과학이 가치중립적이란 신화는 무너지고 만다. 어 느 시대가 낳은 과학이론은 과학자의 인생관, 자연관은 물론 당대의 시대사조 나 사회·경제·문화적 제반 요소들이 상당히 긴밀하게 상호작용한 총체적 산 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어느 시대적 분위기가 무르익어 어떤 과학 이론을 출현시키는가 하면, 그 배출된 이론이 다시 문화의 여러 영역에서 되 먹임 되어 직접 또는 간접의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이다. 다윈의 진화론으로부터 사회적 다윈주의가 출현한 것은 그 가장 극적인 예이고, '엔트로피 법칙'이 현존 과학기술 문명에 걸린 발전 개념을 비판하고 새로운 세계관을 모색하는 틀이 되는 것도 그 같은 맥락이다.

- ① 기상천외한 그들의 행적은 하나의 신화로 남았다.
- ②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은 짧은 기간 동안 고도성장의 신화를 이룩하였다.
- ③ 월드컵 4강 신화를 떠올려 본다면 국민 소득 2만 달러 시대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④ 미식축구 선수 하인즈워드의 인간 승리를 보면서 다일민족이라는 신화가 얼 마나 많은 혼혈 한국인들을 소외시켜 왔는지 절실히 깨달았다.

<해설> 4. ④

'신화'의 본래 의미는 '신성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신화'의 본래의 의미가 아닌 반어적 어투로 쓰여 '신화'는 '잘못된 믿음, 고정관념'을 뜻하는 것으로, ④이 '단일민족이라는 믿음(잘못된 믿음, 고정관념)'의 같은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① '신비스러운 이야기'라는 의미로 쓰였다.
- ②, ③ 절대적이고 획기적인 업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호호쌤> 문맥적 의미를 묻는 것인데, 문제를 풀면서 감각을 익혀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출사표> 모의고사 시리즈의 문제를 풀어서 준비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고, 어휘 문제를 많이 실어둔 <우리말합3.0>의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5.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ㄱ. 이 세상에서 가장 결백하게 보이는 사람일망정 스스로나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결함이 있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못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일망정, 결백한 사람에서마저 찾지 못할 아름다운 인간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 ㄴ. 소설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는 은연중 이처럼 모든 사람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두 갈래로 나누는 버릇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인지 흔히 사건을 다루는 신문 보도에는 모든 사람이 '경찰' 아니면 '도둑놈'인 것으로 단정한다. 죄를 저지른 사람에 관한 보도를 보면 마치 그 사람의 죄의 화신이고, 그 사람의 이력이 죄만으로 점철되었고, 그 사람의 인격에 바른 사람으로서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 ㄷ. 이처럼 우리는 부분만을 보고, 또 그것도 흔히 잘못 보고 전체를 판단한다. 부분만을 제시하면서도 보는 이가 그것이 전체라고 잘못 믿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말했다'를 '으스했다', '우겼다', '푸념했다', '넋두리했다', '벼가렸다', '잡아뺐다', '말해서 빈축을 사고 있다' 같은 주관적 서술로 감정을 부추겨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성적인 사실 판단이 아닌 감정적인 심리 반응으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 ㄹ. '춘향전'에서 이도령과 변학도는 아주 대조적인 사람들이었다. 흥부와 놀부가 대조적인 것도 물론이다. 한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좋고, 다른 사람은 모든 면에서 나쁘다. 적어도 이 이야기에 담긴 '권선징악'이라는 의도가 사람들을 그렇게 믿게 만든다.

- 한창기, '배움나무의 생각' 중에서 -

- ① (ㄱ) - (ㄴ) - (ㄷ) - (ㄹ)
- ② (ㄹ) - (ㄴ) - (ㄷ) - (ㄱ)
- ③ (ㄱ) - (ㄷ) - (ㄹ) - (ㄴ)
- ④ (ㄹ) - (ㄷ) - (ㄴ) - (ㄱ)

<해설> 5. ②

'춘향전'을 화두로 제시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는 (ㄹ)이 맨 처음에 오고 그 다음 '소설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글을 이어가고 있는 (ㄴ)이 온다. 그리고 앞의 내용을 종합하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ㄷ)이 오며, 마지막으로 (ㄱ)이 온다.

<호호쌤> <위풍당당3.0> 문제집 1권. part 2. 지문형 문제에서 글 순서 배열문제는 아주 많이 다루었습니다. <출사표> 문제집 시리즈에서도 매회 출제했습니다. 이 유형 문제는 단기특강 등에서도 아주 강조했으므로, 만약 이런 유형에 약하다면 <위풍당당3.0>과 <출사표> 문제집에서 이런 유형만 모아서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6. 다음 글에 적합한 고사성어는?

우리 대표팀은 올림픽 예선에서 놀랄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예선전이 있길 전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 있었고 감독의 교체가 있었으며 그러다 보니 대표팀 내부의 심리적인 갈등도 꽤 있었다. 사실 국민 모두 이번 올림픽 예선은 탈락이라는 수모를 겪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표팀의 모든 코치진과 선수들은 그들에 대한 국민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것이다. 그래서인지 대표팀은 들뜨지 않고 본선에 서의 진정한 승리, 즉 금메달을 향해 더욱 가열차게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고 한다. 코치진도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 ① 走馬加鞭
- ② 走馬看山
- ③ 切齒腐心
- ④ 見蚊拔劍

<해설> 6. ①

올림픽 대표팀이 본선 진출에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금메달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므로 이에 적절한 것은 '주마가편(走馬加鞭)'이다.

주마가편(走馬加鞭) :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뜻으로, 잘하는 사람을 더욱 장려함을 이르는 말.

② 주마간산(走馬看山) : 말을 타고 달리며 구경한다는 것으로, 자세히 살펴지 아니하고 대충대충 보고 지나감을 뜻한다.

③ 절치부심(切齒腐心) :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④ 견문발검(見蚊拔劍) : 모기를 보고 칼을 빼는 뜻으로, 사소한 일에 크게 성내어 덤빔을 이르는 말이다.

<호호쌤> <완전국어> 교재 <실용한자> 편 114페이지. 고사성어 편에 있으며, 고사성어 문제는 <출사표> 모의고사집 시리즈에 많이 되풀이해서 나옵니다. 좀더 어려운 고사성어 문제를 준비하는 데는 <사주한자 문제편>이 좋습니다.

7. (다) 글의 ㉠에 들어갈 말로, 주제를 함축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돛이 오르자 썰물에 **갈바람**을 맞으며 배는 조용히 미끄러져 나갔다.

- ① 셋바람
- ② 하늬바람
- ③ 마파람
- ④ 된바람

<해설> 7. ②

'갈바람'은 '가을바람'의 준말로 '서풍'을 뜻한다. '서풍'을 뜻하는 바람으로는 '하늬바람'이 있다.

① 셋바람 : '동풍'을 뜻한다.

③ 마파람 : '남풍'을 뜻한다.

④ 된바람 : 매섭게 부는 바람을 뜻하는 것 = '북풍'

<호호쌤> <완전국어> 교재 <언어지식>편, 127페이지 고유어, 6번 도표 '바람' 항목에 있습니다.

8.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육척방은 남의 나라
창 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詩)' -

- ① 진종일 /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
- ② 나의 사랑, 나의 결별 / 샴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 내 영혼의 슬픈 논
- ③ 내가 그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 ④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 / 울고 간 그의 영혼 / 들에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해설> 8. ②

<보기>의 시는 윤희동의 '쉽게 씌어진 시'로 밑줄 친 부분은 '나'는 '광복에 대한 믿음을 지닌 내면적 자아'를 뜻하고 '나에게'의 '나'는 '현실적 자아'로 이 둘이 '약수'한다는 것은 '자기 성찰을 통한 두 자아의 화해, 자아의 성숙'을 뜻하는 것이다.

- ② 이형기, <낙화> : 이별의 아픔을 통해 얻는 영혼의 성숙이 나타나 있다.
- ① 오장환, <고향 앞에서> : 고향 소식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다.
- ③ 김춘수, <꽃> : 존재의 본질 구현에 대한 소망이 나타나 있다.
- ④ 신동엽, <산에 언덕에> : 민주주의('그'로 표현함) 실현에 대한 의지가 나타나 있다.

<호호쌤> <완전국어> 교재 <고전,현대문학>(=아작아작문학크래커) 100페이지에 '윤희동'의 이 시 분석에 나오는데, 현대시 풀이는 <위풍당당3.0> 문제집 2권 문학 파트에서 연습을 하도록 했습니다. <출사표> 모의고사 시리즈 '빨간책' 10회 16번에 이 시가 나옵니다.

9. 다음에 제시된 외래어 중 표기법에 맞는 어휘의 수는?

<알리는 말씀>

노후 시설 보수 공사를 위해 아파트 입주민께서는 차량을 가급적 지하 주차장에 주차시키고 입주민 외에는 외부 차량의 출입을 절대로 금합니다. 또한 단지 내에도 방문객 이외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2010년 4월 10일 ○○아파트 관리소장 백

- 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합니다.'라는 표현 중에서 '금하다'는 이 글에서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한 것이므로 '금지합니다'로 고치는 것이 좋겠다.
- ② '차량 출입을 절대로 금합니다.'라는 표현 중에서 '절대로'라는 단어는 전체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으므로 빼는 것이 좋겠다.
- ③ '입주민'이라는 낱말은 '새로 지은 집 따위에 들어가 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글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주민'으로 고치는 것이 좋겠다.
- ④ '지하 주차장에 주차시키고'라는 표현 중에서 '시키다'는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므로 '주차시키고'로 고치는 것이 좋겠다.

<해설> 9. ①

'금하다'는 '~에게 ~을 못하게 하다'는 뜻으로 ①에서 '금하다'의 표현을 쓴 것은 적절하다.

- ② '절대로'는 문맥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생략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③ 문맥상 '살고 있는 사람'을 뜻하므로 '주민'으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 ④ '차량을 주차시키고'는 과도한 사동 표현으로 어법에 맞지 않다. 그러므로 '차량을 주차시키고'로 고쳐 쓰는 것은 적절하다.

<호호쌤> <완전국어> 교재 <문법과 독해>에서 79페이지 '부사어 호응' 나오고, 26페이지에 7-5번 도표 <참고>에 '시키다' 표현 자체하자는 말이 분명합니다. <출사표> 모의고사 문제집에서 틀린 문장 고르기 유형을 많이 실어두었습니다.

10.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김정호는 조선 후기에 발달했던 군현지도, 방안지도, 목관지도, 칠첩식지도, 휴대용지도 등의 성과를 독자적으로 종합하고, 각각의 장점을 취하여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다. 대동여지도의 가장 뛰어난 점은 조선 후기에 발달했던 대축적지도의 두 계열, 즉 정상기의 동국지도(東國地圖) 이후 민간에서 활발하게 전사되었던 전국지도·도별지도와 국가와 관아가 중심이 되어 제작했던 상세한 군현지도를 결합하여 군현지도 수준의 상세한 내용을 겸비한 일목요연한 대축적 전국지도를 만든 것이다.

대동여지도가 많은 사람에게 애호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목판본 지도이기 때문에 일반에게 널리 보급될 수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소장·휴대·열람하기에 편리한 데에 있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18세기에 상세한 지도가 만들어졌

다. 그러나 그 지도는 일반인들은 볼 수도, 이용할 수도 없는 지도였다. 김정호는 정밀한 지도의 보급이라는 사회적 욕구와 변화를 인식하고 그것을 실현하였던 측면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그러나 흔히 생각하듯이 아무런 기반이 없는 데에서 혼자 독자적인 노력으로 대동여지도와 같은 훌륭한 지도를 만들었던 것은 아니다. 비변사와 규장각 등에 소장된 이전 시기에 작성된 수많은 지도들을 검토하고 종합한 결과인 것이다.

- 양보경 성신여대 교수, '고산자 김정호' (<월간국토> 기고문) -

- ① 대동여지도는 일반 대중이 보기 쉽고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만들었다.
- ② 대동여지도가 만들어진 토대에는 이전 시기에 만들어진 갖가지 지도가 있었다.
- ③ 대동여지도는 목판본으로 만들어진 지도여서 다량으로 제작, 배포될 수 있었다.
- ④ 대동여지도는 정밀한 지도 제작이라는 국가 과제를 김정호가 충실히 수행해 만들었다.

<해설> 10. ④

둘째 문단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18세기에 지도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를 김정호가 수행했다는 내용은 본문에서 찾을 수 없다.

- ①, ③ 둘째 문단의 첫 문장에 나와 있다.
- ② 첫 문단에 나와 있다.

<호호쌤> <위풍당당3.0> 문제집 1권, part 2에 실린 200제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연습용으로 더 풀어보려면, <출사표> 모의고사 '빨간,파란,노란책' 시리즈에 이런 유형이 정말 많습니다. 글에서 항상 초점을 맞추고 읽어야 하며, 특히 우리 시험에서는 마지막 단락에 중점을 두어서 읽어야 합니다.

11. 다음은 '직장인의 자제'라는 신문 기사 표제어의 일부분이다. (가) ~ (라) 중 어법에 맞게 고쳐야 할 것은?

(가) 항상 노력하라.	(나) 성실하게 임하라.
(다) 밝게 웃으며 인사하라.	(라) 열심히 실력을 쌓아라.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해설> 11. ④

(가)~(라)는 간접명령인 '-라'가 결합한 문장이므로 (라)는 '쌓+(으:매개모음)라→쌓으라'가 되어야 한다.

- * 직접명령 : 어간 뒤에 '-아라/어라/여라'가 결합하는 것
- * 간접명령 : 어간 뒤에 '(으:매개모음)라'가 결합하는 것

	직접명령 : -아라/-어라/-여라	간접명령 : -라
(가) 노력하다	노력하+여라 →(축약:ㅏ+ㄷ=ㅞ)노력해라	노력하+라=노력하라
(나) 임하다	임하+여라 →(축약:ㅏ+ㄷ=ㅞ)노력해라	임하+라=임하라
(다) 인사하다	인사하+여라 →(축약:ㅏ+ㄷ=ㅞ)인사해라	인사하+라=인사하라
(라) 쌓다	쌓+아라 → 쌓아라	쌓+(매개모음'으')라=쌓으라

<호호쌤> <완전국어> 교재 실용언어(=실용언어는 밤이다): 71페이지 문제 7번 문제에 직접명령,간접명령 어법이 나옵니다. 국어선생 홈페이지인 hohosam.com <질문있어요>에도 아주 많이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12. 공통으로 쓰인 한자의 독음이 같은 것으로 묶인 것은?

- ① 更新된 계약 문서를 조사하다.
更生의 길로 인도하다.
- ② 불교에서는 殺生을 금지한다.
계산이 相殺되었다.
- ③ 그 안건은 否決되었다.

그 노인은 否塞한 말년을 지내고 있다.

④ 개척이 開拓되어서는 안 된다.

답사의 목적은 비문을 拓本하는 것이다.

<해설> 12. ①

更新(갱신) : 계약 기간을 연장하다.

更生(갱생) : 마음이나 생활 태도를 바로잡아 본디의 옳은 생활로 되돌아가거나 발전된

생활로 나아가감

② 殺生(살생) : <불교>십악의 하나. 생물을 죽이는 일을 이른다.

相殺(상쇄) : 상반되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어 효과가 없어지는 일.

③ 否決(부결) : 의논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否塞(비색) : 운수가 막 막힘.

④ 開拓(개척) : 거친 땅을 일구어 논이나 밭과 같이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들.

拓本(拓本) : 비석, 기와, 기물 따위에 새겨진 글씨나 무늬를 종이에 그대로 떠냄.

<두 음 이상 발음하는 한자>

行	다닐 행	行路(행로), 行列(행렬)
	항렬 항	雁行(안항 : 남의 형제), 行列(항렬 : 가족 서열)
復	회복할 복	回復(회복), 復舊(복구), 光復(광복)
	다시 부	復興(부흥), 復活(부활)
切	끊을 절	切斷(절단), 懇切(간절)
	모두 채	一
	모두 절	一切
識	알다 식	知識(지식), 見識(견식), 鑑識(감식)
	기록할 지	標識(표지)
殺	죽일 살	殺人(살인), 殺菌(살균), 虐殺(학살), 被殺(피살)
	막힐 쇠	殺到(쇄도), 相殺(상쇄), 滅殺(감쇄), 惱殺(뇌쇄)
刺	찌를 자	刺繡(자수), 刺戟(자극)
	찌를 척	刺殺(척살=자살)
洞	마을 동	洞事務所(동사무소), 洞里(동리), 洞窟(동굴)
	통할 통	洞察(통찰), 洞燭(통촉)
率	비례 률	比率(비율), 引上率(인상률)
	거느릴 술	統率(통솔), 引率(인솔), 率直(솔직), 率先垂範(솔선수범), 輕率(경솔)

<호호쌤> <완전국어> 교재 <실용한자>편, 111페이지 '두 음 이상 한자' 도표에 나옵니다. '갱생'과 '갱신'은 114페이지에서 특히 박스 안에 넣어 강조했습니다. 바로 뒤에 실린 문제 편을 봐도 됩니다.

13. 다음 단어의 표기와 발음이 어문 규정상 옳지 않은 것은?

- ① 웃웃 - [우둔]
- ② 윗윗몸 - [위뎀몸]
- ③ 윗변(-邊) - [원뎀]
- ④ 웃돈 - [운뎀]

<해설> 13. ②

윗윗몸 - '위'+ '윗몸'의 합성어로 '윗윗몸[원뎀몸]'으로 발음한다.

[윗윗몸 → (음절의 끝소리 규칙)원뎀몸 → (ㄴ첨가)원뎀몸 → (비음화: ㅌ+ㄴ/ㅌ=ㄴ) 원뎀몸]

<호호쌤> <완전국어> 교재 실용언어(=실용언어는 밥이다): 142페이지 '사이시웃 발음 3가지' 도표를 보면 됩니다. <우리말합3.0> 실용언어 문제집. 31페이지 10회 5번 문제에 사이시웃 발음 문제가 나옵니다.

이번에 본 국가직 시험에서 실용언어에서 실수를 한 학생이라면 실용

언어 문제집 <우리말합3.0>을 매일 1회씩 풀어주십시오. 어떤 기본서로 준비를 했든지, 실용언어 문제집으로는 가장 문제 유형이 실전과 딱 맞으면서, 불필요한 문제가 없어서 시간 낭비가 없도록 했습니다.

14.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이라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보니 욕심이 생긴다.
- 그 교수님의 강의 내용은 작년 것과 (㉡)하다.
- 부정부패를 (㉢)하고서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는 법이다.
- 공무원은 (㉣)의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 ㉠ 見勿生心 大同少黨 發本塞源 不偏不黨
- ㉡ 見勿生心 大同小異 拔本塞源 不便不黨
- ㉢ 見物生心 大同小異 拔本塞源 不偏不黨
- ㉣ 見物生心 大同少黨 發本塞源 不便不黨

<해설> 14. ①

㉠견물생심(見物生心) : 어떠한 실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

㉡대동소이(大同小異) : 큰 차이 없이 거의 같음

㉢발본색원(拔本塞源) : 좋지 않은 일의 근본 원인이 되는 요소를 완전히 없애 버려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없도록 함.

㉣發(피다 발) : 開發(개발), 發展(발전)

㉠ 拔(뽑을 발) : 選拔(선발), 拔萃(발취)

불편부당(不偏不黨) :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침 없이 공평함.

㉢ 偏(치우칠 편) : 偏見(편견), 偏頗(편파)

㉣ 便(편할 편) : 便宜(편의), 形便(형편)

<호호쌤> <완전국어> 교재 <실용한자> 편, 114페이지부터 고사성어 편이 나옵니다. 거기 실린 내용과 그 뒤에 실린 고사성어 문제로 준비가 가능하며, <우리말합 3.0> 실용언어 문제집에도 이런 유형을 매회 넣어두었습니다. 26페이지 9회의 1번 문제, 49페이지 15회 7번 같은 유형을 풀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고사성어에서 좀더 어려운 문제를 보고 싶으면 <사주한자 문제편>이란 교재 106페이지 고사성어 100제를 보면 됩니다.

15. 밑줄 친 단어 중 우리말의 어문 규정에 따라 맞게 쓴 것은?

- ① 윗층에 가 보니 전망이 정말 좋다.
- ② 윗편에 정말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다.
- ③ 그 일에 익숙지 못하면 그만 두자.
- ④ 생각컨대, 그 대답은 옳지 않을 듯하다.

<해설> 15. ③

① 윗층(×)→위층(○), ② 윗편(×)→뒤편(○) : 윗말이 된소리나 거센소리로 시작하는 경우, 사이시웃을 붙이지 않는다.

④ 생각컨대(×)→생각건대(○) : '생각하건대'의 줄임말로, 'ㄱ, ㅂ, ㅅ(안울림소리)'뒤에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그러므로 '생각건대'가 맞다.

<호호쌤> <완전국어> 교재 실용언어(=실용언어는 밥이다): 16페이지 '자음축약' 도표에 있습니다. <우리말합3.0> 문제집 30페이지, 10회의 3번에 자음축약 문제가 나오고, 5페이지 2회.3번 문제에 '위층, 위쪽' 이 나옵니다. 사이시웃 이론을 '고유어+고유어나, 한자+고유어'냐의 원리대로 꼼꼼히 봐두는 것은 다음 시험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국가직은 기본적인 표기를 물었지만, 수탁지방직에서는 항상 더 들어간 문제를 묻기 때문입니다.

16.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이 맞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gas - 가스, 전주(지명) - Jeonjoo
- ② center - 센터, 서산(지명) - Seosan

- ③ frypan - 후라이팬, 원주(지명) - Wonju
- ④ jumper - 점퍼, 청계천(지명) - Chonggyecheon

<해설> 16. ②

① 전주는 'Jeonju'로 표기해야 한다.

③ frypan - 프라이팬

④ 청계천은 'Cheonggyecheon'으로 표기해야 한다.

<호호쌤> <완전국어> 교재 실용언어(=실용언어는 밥이다): 157페이지 '로마자 표기 모음 도표'와 191페이지 '외래어 표기 연습문제 100제'면 해결이 됩니다.

17.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초성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설명에 따르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 ② 중성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설명에 따르면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를 기본으로 만들었다.
- ③ 현대 한글맞춤법에 제시된 한글 자모의 순서는 '훈몽자회(訓蒙字會)'의 자모 순서와 같다.
- ④ 훈민정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ㄱ'을 '기역'이라 부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해설> 17. ③

현대 한글맞춤법에 제시된 한글 자모의 순서는 '훈몽자회(訓蒙字會)'와 같지 않다. 처음 순서는 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 같지 않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명칭(한글 자모의 명칭)을 훈몽자회에 의거한 것이다.

④ 훈민정음 창제 당시(세종 때)의 'ㄱ'의 정확한 명칭은 알 수 없다.

<호호쌤> <완전국어> 교재 <언어지식>편, 238페이지 고전문법 6번 문제의 응용입니다. 국가직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지식측면에 국어에 매달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문제집을 풀다가 틀리는 문제 정도를 체크하는 수준으로 가고, 훈민정음 자체에 관한 정보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다음 중 우리말 표현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서울시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이 문제는 빠지지 않고 거론되어 왔다.
- ② 이곳에 주차하는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하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 ③ 행정 당국은 위험 지역을 신속하게 재점검하고 긴급 대책을 펴야 한다.
- ④ 각 지역에 설치된 은행은 혈관이고 중앙은행은 마치 심장 구실을 한다.

<해설> 18. ①

② '주차하는 사람'과 '과태료가 부과하다'가 호응이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주차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니'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③ 무엇에 대한 긴급 대책인지가 빠져 있고, '긴급 대책'에 대한 서술어 또한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행정 당국은 위험 지역을 신속하게 재점검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또는 사고 방지) 대책을 긴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④ '각 지역에 설치된 은행은 마치 혈관과 같은 역할을, 중앙은행은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호호쌤> <완전국어> 교재 <문법과 독해> 69페이지 '어법에 맞는 문장' 1번 항목, 주술구조 찾기와 78페이지 4번 항목, 접속구조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면 풀 수 있습니다. 틀린 문장 문제는 늘 되풀이해서 풀어야 합니다. 왜 틀렸는지 이유를 반드시 점검하면서 공부하세요.

19.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한자의 상형성과 表意性에 대해 논하고 있다.
- ② 한글은 表音文字이지만 기본형을 유지하는 형태 위주의 표기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表意文字인 한자와 상통하는 특성을 살린 표기법이다.

피천 백 낭에 남의 깊은 속내까지 엿탐할 작정이오? 변설이 번드레하길래 세상 물정에는 웬만큼 미림이 _____ 줄 알았더니마는.....
- 송기숙, '낙두장군' 중에서 -

- ① 트인 ② 튼 ③ 환한 ④ 굵은

<해설> 19. ④

미림 : 경험을 통하여 얻은 묘한 이치나 요령.

- ① 미림이 트이다 : 경험에 의하여 묘한 이치를 깨닫게 되다.
- ② 미림이 트다 : 경험에 의하여 묘한 이치를 깨닫다.
- ③ 미림이 환하다 : 잘 알다. 경험이 많다.

<호호쌤> <완전국어> 교재 <언어지식>편 143페이지 36번 문제에 '미림'이 나옵니다. 고유어는 그 범위의 문제 100제를 풀어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고유어는 기본서가 아니더라도, <우리말말 3.0> 문제집이나, <출사표> 모의고사 시리즈에 반복적으로 출제했습니다.

20. 다음 글을 바탕으로 이해 혹은 유추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자는 시대마다 색과 향이 다른 문화를 꽃피우며 수천 년의 숙성을 거쳐 오늘에 이어지고 있다. 거북 뼈에 칼로 새겨 쓰던 원시 글자는 'e-pen'의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백인문화의 우월성을 내세우며 '문자 발전의 최후 단계에 속하는 갑골문자'라고 한자를 깎아내린 것은 해례이었다. 그러나 이미지와 감성, 이미지와 텍스트의 조화가 강조되는 21세기에 한자의 매력은 더욱 도드라지고 있으니 이진 분명 문화사적 역전이 아닌가.

한자 하나하나의 내면에는 오랜 세월 증원과 한반도, 일본 열도를 넘나든 수많은 사람들의 숨결이 배어 있다. 동양인들의 삶, 그 삶의 날줄과 씨줄의 확으로 엮여놓은 역사의 무늬가 새겨져 있다. 갑골문과 청동기 문자를 해독하며 그 속에 감추어진 동아시아 문화의 기원을 탐색해 온 저자. 그는 한자를 깊이 읽어야 할 이유를 이리 설명한다.

"좋은 삶은 우리는 한자를 통해 벗어난 문화적 존재다. 한자는 동아시아 문화의 깊은 굴절 마디마디를 기억하고 있는 역사의 아이콘(이미지)이다.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문화적 통찰과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저자는 구석기시대의 그림문자에서 갑골문, 금문, 전서, 예서, 초서, 행서, 해서 그리고 간자체에 이르기까지 한자 서체의 변화를 더듬으며 문자와 인간의 발자국을 함께 훑는다. 초서와 행서의 시대를 들여다보자. 거대한 한나라가 중앙집권의 고삐를 놓치면서 들이닥친 위진남북조는 '인디밴드' 같았던 도가가 한순간 주류로 올라선 시기였다. 유연한 시대의 바람을 타고 한나라의 예서는 미적 감성을 듬뿍 담은 글꼴로 변신한다. 정치적이기만 했던 한자의 글꼴이 비로소 예술적 감성의 세례를 받았으니 예서의 필획이 자유의 날개를 달아 준 것은 왕희지였다. 그러나 한자의 글꼴은 송, 명대에 이르러 점차 생명을 잃어간다. 그리고 청 말기 혁명의 와중에 최대의 시련을 맞는다. 20세기 초 지식인들은 망국의 원흉으로 '유교의 그릇'인 한자를 지목했다. 너나없이 '한자불멸, 중국필망(漢字不滅, 中國必亡)'을 외쳤다. 그러나 한자는 죽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중국인들은 깨달았다. '한자멸, 중국역멸(漢字滅, 中國亦滅)'

이 모순의 현장에서 절충을 시도한 게 마오쩌둥이다. 그는 한자의 몸 일부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한자의 생명을 연장시켰다. 오늘날의 간자체다. 한자는 뜨거운 풀무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버려졌다. 영어가 판을 치는 세계의 한복판을 강물처럼 유유히 흐르고 있는 한자. 이 끈질긴 생명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건 상형의 힘이라고 한다. 그게 뭐냐? 그림의 힘이다. 이미지의 힘이다. "이미지란 설명을 넘어서 직관에 던지는 강속구다. 말하자면 '오프라인의 모바일' 이랄까." 바야흐로 한자는 아이콘과 텍스트가 합성된 새로운 의사소통 도구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지금 그 한자를 바라보며 한자가 숨기고 있는 깊은 이미지의 바다 속으로 헤엄쳐 들어가고 있다.

- 김정일, '한자의 역사를 따라 간다' -

- 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한자의 상형성과 表意性에 대해 논하고 있다.
- ② 한글은 表音文字이지만 기본형을 유지하는 형태 위주의 표기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表意文字인 한자와 상통하는 특성을 살린 표기법이다.

- ③ 한글은 表音文字이므로 이미지를 배제한 문자라고 할 수 있다.
- ④ 이미지와 텍스트의 혼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국한문의 혼용이 더 적절할 수 있다.

<해설> 20. ③

한글은 표음문자이기는 하나 이미지를 완전히 배제한 것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또한 이 글의 주된 내용이 '이미지가 텍스트가 혼합된 한자'에 관한 내용인 것을 고려해 볼 때, 한자와 한글을 비교하는 내용은 유추할 수 있으나 한글에 관한 어떠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정의를 내리기 위한 근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본문에 있어야 하나 지금 이 글의 내용에서는 '한글이 이미지를 배제한 문자'라는 정의를 유추해 내기 위한 근거 내용을 찾을 수 없다.

- ① 4문단에서부터 마지막 문단까지의 내용에 해당한다.
- ② 한자의 두 가지 특징 중 텍스트적 특징의 예를 한글 맞춤법에 찾은 것으로 한자의 텍스트적 특징을 한글에서 찾은, 사례를 역으로 찾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1문단에서 이미지와 텍스트의 조화가 강조되는 21세기에 한자의 매력에 더욱 도드라지고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부터 유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호호쌤> <위풍당당3.0> 문제집 park 2. 지문형 문제가 총 20회, 200개입니다. 이 부분을 수업에서 강조하는 요령대로 풀어가기를 권합니다. 예를 들어, 172페이지 문제 4번을 푸는 방식대로 풀어가면 이런 지문형 문제에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긴 지문에 절대 당황하지 말고, 항상 글의 초점이 뭔가를 생각하면 오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매일 연습해 주세요. 기본서는 각자 다른 것으로 준비하더라도, 시험 전에 풀어보는 지문형 문제나 오늘 시험과 같은 유형을 더 연습하려면, <출사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시리즈를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출사표> 파란색과 노란색에 긴 지문형 문제가 좀더 실려있는데, 지문 내용을 비틀기보다, 주제 자체에 초점을 맞춘 유형을 매일 풀어보면 좋겠습니다.